

2018년 10월 23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다우지수, 제약, 금융주 부진으로 하락 전환 나스닥은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실적 가이드언스에 민감한 미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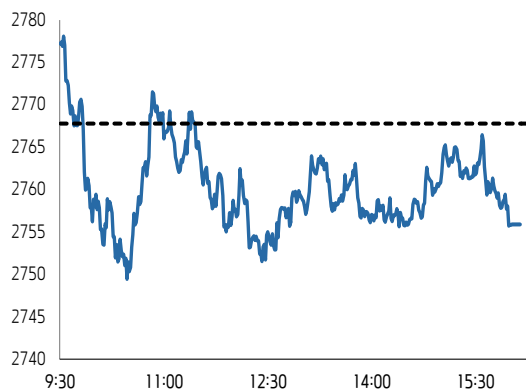
미 증시는 중국 증시 급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와 EU 간의 2019 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마찰이 이어지자 매물 출회. 더불어 원유서비스 업체인 할리버튼(-3.04%)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실적 둔화 여파로 다우지수 하락 전환. 다만,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자 나스닥은 상승하는 등 혼조 마감(다우 -0.50%, 나스닥 +0.26%, S&P500 -0.43%, 러셀 2000 -0.16%)

19 일(금) 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중 80%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영업이익을 발표.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지난 19 일(금) S&P500 의 3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5% 증가한 것으로 추정. 이는 12 일(금) 보다 0.4%p 상향 조정. 특히 금융이 지난주 대비 1.9%p 필수소비재 또한 지난주 대비 1.1%p 상향 조정.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섹터(+0.2%p), IT(+0.2%p) 등도 상향 되는 등 3 분기 미국 실적이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추정.

그러나 4 분기 S&P500 영업이익은 전주 대비 0.5%p 하향 조정 된 전년 대비 16.5% 증가할 것으로 전망. 금융 업종이 지난주 대비 1.2%p 하향 조정 된 전년 대비 19.8% 증가할 것으로 전망.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섹터가 지난주 대비 0.5%p 하향 조정 되는 등 에너지(+0.8%p)와 IT(0.0%p)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난주 대비 하향 조정. 이렇듯 4 분기, 더 나아가 2019 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 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여파로 최근 미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한편, 팩트셋은 3 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적 부진요인을 조사했는데, 달러 강세(27.8%), 원자재가격(14.8%), 임금상승(14.8%), 무역관세(11.1%), 운송비(9.3%) 등을 꼽고 있음. 이를 감안 미 증시는 달러 강세 및 비용 증가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61.71	+0.25	홍콩항셱	26,153.15	+2.32
KOSDAQ	744.15	+0.50	영국	7,042.80	-0.10
DOW	25,317.41	-0.50	독일	11,524.34	-0.26
NASDAQ	7,468.63	+0.26	프랑스	5,053.31	-0.62
S&P 500	2,755.88	-0.43	스페인	8,806.50	-0.96
상하이종합	2,654.88	+4.09	그리스	626.61	+0.29
일본	22,614.82	+0.37	이탈리아	18,966.22	-0.6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강세

원유서비스업종인 할리버튼(-3.04%)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적 가이드언스를 하향 조정하자 하락 했다. 슬룸베르거(-2.84%)도 지난주 양호한 실적 발표로 상승 하기도 했으나 할리버튼 실적 발표 이후 매출 출회되며 동반 하락했다. 장난감 제조업체 하스브로(-3.09%)는 부진한 실적 발표 여파로 하락 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6.30%)는 FDA가 폐암 환자에 대한 치료제 승인이 2019년 5월까지 3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급락 했다. 에브비(-4.21%), 암젠(-1.87%), 셀진(-2.18%) 등 일부 제약 바이오 업종도 동반 하락했다.

한편, 씨티그룹(-3.30%)은 중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직접 노출된 부분은 전체 자산의 1.2%에 불과해 영향은 크지 않지만, 홍콩 등을 감안 하면 노출이 4%에 가까워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BOA(-3.32%)를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주도 동반 하락 했다. 반면, MS(+0.89%), 알파벳(+0.56%), 아마존(+1.43%) 등 대형 기술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 인텔(+2.30%)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노무라가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상승 했다. 마이크론(-1.71%)은 레이몬드가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60%	대형 가치주 ETF	-0.97%
에너지섹터 ETF	-1.81%	중형 가치주 ETF	-0.96%
소매업체 ETF	+1.10%	소형 가치주 ETF	-0.53%
금융섹터 ETF	-2.14%	배당주 ETF	-0.72%
기술섹터 ETF	+0.83%	변동성 ETF	+1.50%
소셜 미디어업체 ETF	+1.08%	대형 성장주 ETF	-0.01%
인터넷업체 ETF	+0.85%	중형 성장주 ETF	+0.08%
리츠업체 ETF	-1.41%	소형 성장주 ETF	+0.05%
주택건설업체 ETF	-1.07%	신흥국 고배당 ETF	+0.72%
바이오섹터 ETF	-1.44%	신흥국 저변동성 ETF	+0.74%
헬스케어 ETF	-0.82%	하이일드 ETF	+0.03%
곡물 ETF	+0.46%	물가연동채 ETF	-0.05%
반도체 ETF	+0.54%	Long/short ETF	+0.2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24.19	-1.10%	-2.22%	-7.14%
소재	329.85	-0.92%	-1.78%	-12.00%
산업재	612.90	-0.37%	-1.60%	-7.38%
경기소비재	852.55	+0.48%	-1.04%	-8.04%
필수소비재	557.95	-0.77%	+2.85%	-0.11%
헬스케어	1,050.20	-0.81%	+0.41%	-3.98%
금융	433.41	-2.06%	-0.81%	-8.27%
IT	1,238.58	+0.81%	+1.29%	-5.83%
커뮤니케이션	153.14	-0.04%	+1.11%	-3.80%
유틸리티	275.10	-0.68%	+1.98%	+3.10%
부동산	193.99	-1.41%	+1.24%	-3.7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증시 방향성에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13% MSCI 신흥 지수는 1.08%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2,175 계약) 여파로 1.30PT 하락한 278.6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2.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증시는 중국 증시 급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중국 정부의 연이은 경기 안정 및 주가 부양책이 지난주 금요일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보강위가 보험업계의 대규모 자금을 통해 A 주 매입을 허용하는 등 수급적인 안정을 보인 점이 강세 요인 이었다. 이러한 중국 증시의 상승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미 증시가 실적 시즌을 통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더불어 이탈리아-EU 마찰이 지속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 점 또한 부담이다. 이는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와 외국인들의 매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분쟁과 관련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 하며 11 월 말에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의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킨 점도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무역분쟁 관련 협상자리가 아니다” 라고 주장 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오늘도 중국 증시 변화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경제지표 둔화

9 월 시카고 국가활동 지수는 전월(0.27) 이나 예상치(0.18)을 하회한 0.17 로 발표되었다. 3 개월 평균 또한 전월(0.27) 보다 둔화된 0.21 로 발표되었다. 소비 및 주택 지표 위축이 전반적으로 지수 둔화를 야기 시켰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강세

국제유가는 장 초반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출발 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그러나 사우디 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이 “ 현재 하루 평균 1 천 70 만 배럴 수준인 산유량을 조만간 1 천 100 만배럴 수준으로 올릴 것이다” 라고 언급하자 상승폭이 축소 되었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 약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총리가 2019 년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을 것임을 EU 집행위에 전달한 여파로 달러 대비 하락 했다. 최근 EU 집행위 관리가 이탈리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탈리아 정부의 강경한 반응은 유로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탈리아는 유로존을 탈퇴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한 점을 감안 약세폭은 제한 되었다. 파운드화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거래에 대해 95% 완료 되었다고 주장 했으나 24 일 메이 총리 불신임안 이슈가 부각된 점이 부담이 돼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장 초반 상승 출발 했으나, 미 증시가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을 키우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하락 전환 하기도 했으나, 국채입찰을 앞두고 있어 재차 반등을 보이며 강보합권 등락을 보였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7%, 철근도 0.82%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9.36	+0.12	-3.14	Dollar Index	96.019	+0.32	+1.01
브렌트유	79.83	+0.06	-1.18	EUR/USD	1.1467	-0.41	-0.97
금	1,224.60	-0.33	-0.46	USD/JPY	112.82	+0.24	+0.94
은	14,587	-0.43	-0.95	GBP/USD	1,2970	-0.81	-1.38
알루미늄	2,007.00	+0.20	-0.99	USD/CHF	0.9962	+0.02	+0.89
전기동	6,242.00	+0.35	-0.94	AUD/USD	0.7084	-0.49	-0.65
아연	2,656.00	+1.14	+2.19	USD/CAD	1.3098	-0.05	+0.82
옥수수	369.50	+0.68	-2.31	USD/BRL	3,6867	-0.65	-1.33
밀	508.00	-1.31	-3.24	USD/CNH	6,944	+0.14	+0.30
대두	872.50	+0.23	-3.67	USD/KRW	1128.40	-0.33	-0.52
커피	117.65	-3.64	-1.42	USD/KRW NDF 1M	1132.00	+0.07	+0.0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198	+0.57	+4.21	스페인	1.693	-3.70	+1.60
한국	2.342	+2.00	-3.80	포르투갈	2.007	-0.70	+1.10
일본	0.154	+0.50	+1.00	그리스	4.308	-2.00	-6.00
독일	0.448	-1.20	-5.50	이탈리아	3.487	+0.90	-5.50